

인공지능(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What Kind of Society Can We Design in the Age of AI?

기술문명의 격변은 필연적으로 사회체제를 바꾸기 마련이다. 이는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요구한다. 이에 관해 인류는 이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복지국가의 등장을 이미 경험하였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여러 가지 기술 중 하나가 아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삶과 사회를, 그리고 인간 자체와 문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과 노동, 돌봄, 놀이는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 어쩌면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이미 바꿔놓고 있다. 즉 이것은 현재진행형의 변화이다.

지난여름 초입에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집위원회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그저 닥쳐오는 것, 적응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물밑듯 닥쳐오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를 그저 맞이하고 지켜보기보다는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질문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게으름을 생각하면 뼈아프기도 하다.

이 자리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결정적으로 허물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가파른 발전과 범용화 속에서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사회정책연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번 인사이트 포럼은 필요했고 시의적절하였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앞으로 어떠한 변화의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둘째,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두 명의 발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는 서로 엇갈린 이슈와 우려 및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선택지가 열려 있고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다행이었다. 덕분에 이번 인사이트 포럼에서는 AI 시대 변화와 인간의 실천에 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표 ‘인공지능 사회의 시나리오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의 논점으로 노동, 소득, 돌봄, 그리고 정서와 정치까지 망라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AI 시대 다양한 사회 변화의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발전과 원활한 재분배 및 관계의 복원을 통해 자동화 이익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탈희소성 여유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탈희소성 여유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인데, 발표에서는 특히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콘셉트를 다시 소환한 ‘신발전주의 국가 거버넌스 모델’이 제안되었다. 또한 생산성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및 분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저렴한 공공서비스의 확대, 참여수당 및 변형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재정구조 재편 등이 제안되었다. 핵심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사회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AI 시대, 의료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과 과제'는 의료 영역에 집중하여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에 더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이는 사회정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활용론이라 할 수 있다. 발표는 이미 의료서비스 제공 흐름 곳곳에서 AI가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AI 기술 활용이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AI 활용을 재설계함으로써 의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네 가지 공백인 인력, 공간, 시간, 연결의 문제를 해결해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에서 AI 기술 활용 테마는 '사람 중심 설계'로 제시되었다. 이는 이윤이 아닌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활용 설계를 의미한다. 특히 여나금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보상체계 및 정보 흐름을 재구조화시킴으로써 소위 시장이 메우지 못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격차를 줄여내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발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사회적 자원을 고르게 (재)분배해 내는 사회정책 설계를 역설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두 개의 발표가 제기한 논점에 토론자들의 날카로운 견해가 더해지면서 논의는 더욱 풍성해졌다. 우선 토론자인 권용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이라는 책임 없는 비인간행위자의 역할 확대, 끊임없는 과의존 및 조작가능성이 결국 우리 사회정책의 책임, 신뢰, 사회연대라는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토론자는 무엇보다도 역량과 신뢰라는 사회정책의 토대를 재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사회 역량을 쏟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시민의 비판적 역량과 사회신뢰 회복 투자에 우선 할애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에서 핵심 문제 제기는 첫째, 노동이 사라진 인간의 삶을 어떻게 채우며 정의할 것인가, 둘째, 임금협상, 노동권 보호, 소득분배 없이 일자리 소멸에 따른 생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복지국가 근간이었던 사회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그는 특히 '미래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경로를 정하는 공동체의 집단 의지'라고 하며 시민과 사회가 기술 발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사이트 포럼 전체 기조와도 일치하였다.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기술혁신이 반드시 사회진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발생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노동의 측면에서는 AI를 직업 소멸의 문제가 아닌 직무 재구성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동정책의 핵심이 숙련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전환 정책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평생학습체계, 전환훈련,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기술 변화 적응을 위한 (숙련)지원과 사회보험을 비롯한 소득안정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료의 AI 활용에서 사람 중심 설계가 환자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지적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 장숙량 중앙대학교 교수는 의료와 돌봄 분야에서 이미 격차가 상당한 지형에서 과연 AI 기술로 보건의료, 돌봄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에서 AI 기술과 인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풍성한 논의를 더하였다. 과연 AI가 도구라면, 도구로서 인공지능 자체에 내재된 불평등의 문제, 특히 데이터에 각인되고 알고리즘이 증폭시키는 불평등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과연 제도설계로 극복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한국 보건의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 정읍시 AI의 안부전화에 관한 대규모 실증연구를 통해 AI와 인간의 역할분담뿐만 아니라 기술오분류 및 돌봄의 기계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조남경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AI와 노동에 관한 논의가 유급노동을 넘어 '다양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사회시스템에 관한 고민 역시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바로 지금 전체 의료기관의 AI 의료 도입을 지금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지원해야

할 만큼 이것이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질문하였다. 예컨대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은 인력과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니 말이다. 또한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AI를 의료과정 효율화, 진단 정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고 있고 해당 의료기관과 인공지능 기술업체는 소비자 선택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인데 왜 국민이 비용지원을 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여러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하나같이 밀도가 높았고, 다루는 주제의 깊이와 넓이는 깊고 광범위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AI 발전의 여파가 턱밑까지 차올라와 있기 때문일 것이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각자에게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 당신의 일자리와 삶은 괜찮을지 끊임없이 물으며 불안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불안에 편승한 것이 막연한 희망에 기초한 투자자 만들기 열풍일 수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누구든 금융시장의 대중 투자자가 되어 누리라는 메시지는 일견 민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불평등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개인’으로만 존재하게 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이트 포럼은 기술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인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중요하며, 공동의 협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의 속도조절이 되었든, 소득과 돌봄은 물론 건강,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나아가 노동할 권리, 신기술, 사회적 연결까지 삶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아이디어이든, 누가 어떻게 만들고 의사결정하는가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원자처럼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AI 기술 발전과 활용을 함께 고민하는 민주주의가 더 소중해진다. 포럼 제목마냥 ‘우리가 우리답게 되는 것, 주체로서 인간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다. 기술 발전 이후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우리’에 관한 질문이 인사이트 포럼 이후 다음을 위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

2026. 9. 30.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전(前) 위원장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